

여행일기, 일기의 등장

- 15세기 후반 일기체 기록의 등장에 대해서 -

이 정 철*

- I. 머리말
- II. 본론
 - 1. 김종직의 「遊頭流錄」
 - 2. 두 편의 「遊松都錄」과 「松京錄」
 - 3. 「智異山日課」와 「續頭流錄」
 - 4. 「遊金剛山記」와 「遊金剛錄」
- III. 맺음말

국문초록

16세기 전반 인물 魚叔權이 증언하듯, 일기체 기록은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했다. 1472년 김종직이 자신의 지리산 여행을 기록한 「유두류록」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일기 기록의 시초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기록 형식의 등장이나 변화는 내밀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이 조선시대 일기체 기록의 등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이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 pkaljc@daum.net

을 것이다.

본 논문은 15세기 후반에 생산된 8편의 일기체 기록을 검토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아마도 15세기 후반에 일기체 기록이 시작되었지만, 형식이 완전히 정착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15세기 후반에 가장 발전된 형식의 일기를 기록한 사람이 남효온이다. 그는 3편의 여행기록을 남기는데, 그중에서도 「智異山日課」는 전형적인 일기의 형식과 내용을 가진다. 더구나 「遊金剛山記」에서는 당일의 기록을 당일에 기록하는, 일기의 주요한 특성인 ‘即時性’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록에 ‘日記’ 혹은 ‘日錄’이라는 단어 대신에 ‘日課’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것은 당시에 ‘일기’나 ‘일록’이 사회적으로 정착된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할 것이다.

◆ 주제어

일기, 「유두류록(遊頭流錄)」, 「유송도록(遊松都錄)」,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두류기행록(頭流紀行錄)」, 「속두류록(續頭流錄)」, 「송경록(松京錄)」, 「지리산일과(日課)」, 「유금강록(遊金剛錄)」

I. 머리말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조선시대 일기는 하나의 자료군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인식을 가져온 가장 큰 계기는 민간 일기자료가 더 많이 발굴되고 연구되면서 기존 관찬자료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기를 활용한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조선시대 일기가 가진 주제와 형식에서의 폭넓은 다양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기에 대해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통념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존에는 일기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즉시성’ 즉 경험과 기록 사이에 간극이 좁아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었다. 그것이 기록의 사실성을 확증하며, 바로 이것이 일기가 문학이 아닌 역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상의 가정들이 완화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¹⁾

과거는 현실에 대한 재인식에서 재조명되는 경우가 많다. 전통시대 일기자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일기 기록 그 자체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게 되었다. 일기가 최초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다양한 형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등이 새로운 의문으로 제기되게 되었다.

현재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기체 기록은 고려시대 李奎報(1168~1241)의 「南行月日記」이다. 이규보는 「남행월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경신년(1200) 季冬 서울에 들어와 한가히 있을 때 비로소 그것(:써놓았던 기록들, 필자주)을 꺼내 보았더니 너무 소략해서 읽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기록한 것인데도 도리어 우습기만 하였다. 그래서 다 가져다가 불살라버리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읽을 만한 것을 모아서 우선 차례로 적어보겠다.” 이규보는 1200년 설달에 서울에 복귀하

1)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조선시대사학보』79, 2016, 106~107쪽.

기 전에, “全州 幕府로 나가 2년 동안에 무릇 遊歷한 바가 자못 많았다.” 2년 동안의 지방관 시기 동안에 기록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신유년(1201) 3월에 정리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되었기에 「남행월일기」는 기록된 날짜들 사이에 간격이 커서 일반적인 일기의 형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기 형식을 띤 고려시대 기록으로 또 확인되는 것은 稼亭 李穀이 1349년(충정왕 1)에 쓴 「東遊記」이다. 이곡이 금강산과 동해안 지역을 한 달 넘게 여행한 기록이다. 1349년 8월 14일에 송도를 출발해서 금강산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동해안을 거쳐 9월 21일에 강원도 평해군에 도착하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매일매일 기록하지 않아 여행 기간에 비해서 기록된 분량이 많지는 않다.

이규보의 「남행월일기」를 우리나라 최초의 일기체 기록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일기의 효시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듯하다. 이 기록 이후 약 150년 뒤에 이곡의 기록이 확인되지만 두 기록이 장리적 연속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남행월일기」는 이규보의 개인적 취향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고, 당시 사회적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기록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규보 스스로 「남행월일기」를 남기는 이유를 “내가 일찍이 사방을 두루 다녀 무릇 나의 말발굽이 닿는 곳에 만일 異聞이나 異見이 있으면, 곧 詩로써 거두고 文으로써 채집하여 후일에 볼 것을 만들고자 하였다.”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남행월일기」는 사회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기록 양식이라기보다는 이규보 자신의 개인적 목적 혹은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널리 알려진 李文健(1494~1567)의 『默齋日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전형적이고 완벽한 조선시대 일기이다. 이 일기는 1535년에서 1567년까지 쓴 한문 일기이다. 이문건은 형 忠槿과 더불어 趙光祖 문하에서 학업을 닦고, 1528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을사사화(1545)가 일어나자 그것에 연루되어 현 경북 성주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목재일기』에는 당시 양반들의 교유관계, 관직생

활, 유배생활 등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어떤 개인이 특정한 형식의 글을 썼더라도 그것이 그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새롭고 특정한 기록의 형식이 특정한 시기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등장하였다면, 그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글쓰기 양식이란 직간접적으로 필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태도나 상태를 반영하고, 그것은 또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글쓰기 양식의 변화는 사회적 상황에서 모종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목재일기』와 같은 완성된 일기형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치게 되는 기록형식의 사회적 변화 양상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숙권의 아래 기록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는 할아버지가 좌의정 魚世謙이고 서얼 출신이다. 중국어에 뛰어나 외교에 이바지했으며 시를 평론하는 데에 일가를 이루었다. 동시에 『稗官雜記』 등과 같은 한문 수필집의 저자이다. 그의 정확한 생몰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개 15세기 후반 혹은 16세기 초반에 출생하여 1550년 대 이후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애 대부분은 16세기 전반인 셈이다.

옛사람이 글로써 일을 서술한 것을 記라 하는데, 宋 나라 朱晦庵에 이르러 비로소 「遊衡嶽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점필재의 「頭流紀行錄」이 있으며, 靑坡 李陸의 「遊智異山錄」과 懶齋 蔡壽, 潘溪 俞好仁에게 모두 「遊松都錄」이 있으며, 秋江 南孝溫의 「遊金剛山錄」과 濯纓 金駟孫의 「續頭遊錄」이 있고, 鐵城 李胄의 「金骨山錄」이 있어 드디어 문장의 한 體가 되었다.²⁾

위에서 어숙권이 열거하는 기록들은 거의 일기체의 산문 위주로 기록된 것들이다. 동시에 그것의 기록자들은 대개가 15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사람들이고, 기록 자체도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요컨대 15세기 후반에 조선시대 일기체 형식의 기록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

2) 어숙권, 「稗官雜記」 권2, (국역)『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71.

재 남아있는 기록들도 이 시기 이전의 일기체 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위 어숙권의 증언은 혹시 이 시기 이전에도 일기체 기록들이 다수 있었지만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기체 형식의 기록은 15세기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어숙권이 말한 記 중에는 오늘날 일기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청과 이록(1438~1498)의 「유지리산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록은 김종직보다 9년 앞선 1463년 8월에 지리산을 유람한 뒤 이 기록을 남겼다. 「유지리산록」은 지리산을 둘러싼 행정적 지리적 설명, 지리산 내의 자연지리와 생태환경, 계절에 따른 지리산의 날씨, 수많은 불교 사찰들에 대해 생동감 있게 서술하였다. 하지만 제목이 「유지리산록」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을 여행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때문에 여행에 따른 날짜별 구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기 형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주의 「금골산록」은 이록의 「유지리산록」보다는 일기의 형식에 훨씬 가깝지만 마찬가지로 일기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골산은 珍島 읍내에서 서쪽으로 20리 지점에 있다. 이주가 「금골산록」을 남기게 된 계기는 무오사화로 무오년(1498) 가을에 진도로 귀양을 온 것이다. 4년 뒤 임술년(1502) 9월에 왕세자 책봉을 기념하여 大赦令이 내려졌는데 무오사화로 귀양을 온 이주는 사면되지 않았다. 크게 실망한 이주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금골산 上窟에 있는 오랫동안 버려진 佛殿의 齋厨에 23일간 머물렀다. 후에 마음을 돌려 산에서 내려온다. 「금골산록」은 1504년 10월에 기록되었다. 「금골산록」은 일기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 속에 날짜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어숙권이 제시한 15세기 후반의 기록들에는 이렇듯 일기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확연히 일기형식을 갖춘 것들도 있다. 김종직(1431~1492)의 「유두류록」(1472), 채수(1449~1515)의 「유송도록」(1477), 유호인(1445~1494)의 「유송도록」, 남효온(1454~1492)의 「유

금강산기」(1485), 김일손(1464~1498)의 「두류기행록」(1489) 등이 그것이다. 한편 어숙권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역시 15세기 후반에 기록되어 오늘날 전해지는 일기체 기록이 있다. 남효온의 「송경록」(1485)과, 「지리산일과」(1487), 그리고 李穡(?~1504)의 「유금강록」(1493) 등이 그것이다.

이들 일기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적지 않다. 이성혜는 김종직의 「유두류록」을 분석하였다.³⁾ 그에 따르면 「유두류록」은 지리산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기보다는 김종직 자신과 천왕봉이 중심에 있고, 또한 후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정출헌은 남효온의 「송경록」과 「유금강산기」를 분석하였다.⁴⁾ 「송경록」에 대한 분석에서 정출헌은 동시대 훈구관료문인이나 신진 관료문인과는 다른 남효온의 모습을 읽어낸다. 즉, 남효온은 송도 여행의 서사에서 자신들과 같은 젊은 이상주의자들이 경험한 좌절을 풀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정서는 「유금강산기」에서 더욱 심화된 형태로 확인되는데, 정출헌은 이러한 정서에서 남효온 개인의 독특한 면모에 더욱 집중했다. 문범두는 김일손의 「속두류록」을 분석하였다.⁵⁾ 문범두는 특히 기록의 내용을 따라가는 대신에 기록 그 자체를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김일손의 기술방식과 그 속에 나타나는 주제의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역시 동일한 「속두류록」에 대해서 강정화는 유람의 행로와 목적에 주목했다.⁶⁾ 그에 따르면 김일손의 지리산 여행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토 산화와 민생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3) 이성혜, 「경남학 : 사림들의 유람 입문서, 김종직의 「유두류록(遊頭流錄)」, 『慶南文化研究』31, 2010.

4) 정출헌, 「남효온의 송도유람과 『송경록(松京錄)』의 우울한 여정, 『韓國漢文學研究』58, 2015 ; 「추강 남효온과 유산(遊山): 한 젊은 이상주의자의 상처와 지리산의 위무(慰撫)」, 『韓國漢文學研究』47, 2011.

5) 문범두,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의 〈속두류록(續頭流錄)〉 고(考) : 기술방식(記述方式)과 작가의식(作家意識)을 중심(中心)으로」, 『韓民族語文學』51, 2007.

6) 강정화, 「경남학: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의 지리산유람(智異山遊覽)과 「속두류록(續頭流錄)」, 『慶南文化研究』31, 2010.

史官으로서의 기록정신을 확인하였다. 이원의 「유금강록」에 대해서는 이훈의 연구가 있다.⁷⁾ 이 역시 이원이 금강산을 유람하는 내내 유학자적 사유의 태도를 견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각각의 일기에 대한 내용 이해를 높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논문이 본 논문이 주목하는 관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래에서는 15세기 후반에 기록된 8편의 일기체 기록을 검토하여 15세기 후반 일기체 기록의 등장이 가지는 시대적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김종직의 「유두류록」

김종직은 41세가 되던 1471년(성종 2)에 고향인 영남의 善山과 가까운 咸陽에 군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스스로 말했듯이 오래전부터 두류산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다. 1472년 여름에 김종직에게 와서 공부를 했던 문인 曹偉(1454~1503)가 가을에 돌아가려는 즈음이 되자 스승 김종직에게 함께 두류산을 여행할 것을 청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종직의 지리산 여행이 이루어졌다. 「유두류록」은 이 여행의 기록이다.

김종직은 「유두류록」에서 일행이 네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과 “진사 韓仁孝·유호인·조위”이다. 여행이 이루어진 1472년에 김종직은 42세, 유호인은 28세, 조위는 19세였다. 字가 百源인 한인효는 생몰년이 확인되지 않지만, 유호인과 조위의 나이 사이일 가능성이 높고, 조위와는 1472년 진사시 同榜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리산 여행에는 네 사람 이외에도 여러 명이 동행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길을 인

7) 이훈, 「再思堂 李穡의 산수 유람관과 「遊金剛錄」 연구」, 『강원문화연구』26, 2007.

도한 승려 解空과 法宗이 있고, 또 다른 승려 荷納과 玉崑·聳山·廉丁 등으로 지칭되는 아전들이 있었다. 짐꾼들도 있었다. 여행을 시작한 후 둘째 날 짐꾼 중 일부는 돌려보냈지만 다수의 짐꾼들이 여행 기간 내내 함께했다. 적어도 15명 이상의 ‘일행’이 이 여행에 참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두류록」은 1472년 8월 14일 함양 관아에서 출발해서 8월 18일 함양 관아로 다시 돌아오는 5일간 여행에 대한 기록이다.

「유두류록」의 내용 구성은 맨 앞에 서론 격으로 여행의 동기와 일행을 소개하고, 본문 격으로 遊山 과정을 일기체로 상세히 기술하였다. 기록의 마무리에는 유산에 대한 김종직 개인적 감상을 기술했다. 일기 형식에 해당하는 본문에서 지리산의 자연지리적, 인문지리적 모습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고 풍부하다. 지리산을 지나는 일행의 모습과 그들이 겪었던 일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유두류록」에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나오지 않는다. 세금으로 바쳐야 할 지역의 공물 진상품인 갓과 매[鷹]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전부이다. 지식인으로서, 수령으로서 백성들에 대한 온정적 태도가 표현되기도 하지만 내용 전체로 보면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유두류록」에서 김종직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연 풍광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짧은 지리산 여행을 정말로 즐기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제자들이 후일 유산기록에서 보여주는 모습, 즉 자연을 의인화 하고 산속에 있는 절이나 불교 유물과 관련해서 불교를 대단히 비판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이념화된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종직의 「유두류록」은 15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일기체 기록의 효시로 볼 수 있다. 이 기록 형식이 이후 시기에 뒤따르는 여행기록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문인 김일손의 「두류기행록」은 『東文選』에 「속두류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스승 김종직의 「유두류록」을 의식한 제목이다.

2. 두 편의 「유송도록」과 「송경록」

1477년(성종 8) 3월에 채수(1449~1515)는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를 여행하고 「유송도록」을 기록했고, 다음 달 말에서 5월 초에 걸쳐서 유호인(1445~1494) 역시 송도를 여행한 후 동일한 제목의 일기체 기록을 남겼다. 한편 8년 후인 1485년(성종 16)에는 남효온(1454~1492)이 송도를 여행하고 「송경록」을 남겼다. 채수와 유호인의 「유송도록」은 김종직의 「유두류록」처럼 기록의 처음과 끝에 서론과 마무리에 해당하는 글을 배치함으로써 형식면에서 記와 일기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남효온의 「송경록」은 완전한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채수와 유호인의 송도 여행은 약 한 달 간격을 두고 별도로 이루어졌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1476년(성종 7)에 채수·權健·許琛·유호인·조위·楊熙止가 賜暇讀書 대상자로 뽑혔다.⁸⁾ 이들은 현재의 서울 용산에 있던 藏義寺에 모여서 사가독서에 들어갔는데, 독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도는 왕씨의 옛 도읍지로서 참으로 경치 좋은 땅이요, 남은 풍속이 오히려 방불하게 상상될 것이니, 한 번 구경하지 않을 수 있으랴. 더구나 우리들은 지나치게 주상의 은사를 입어, 한갓 文字의 사이에서 치달릴 뿐이요, 卯時(오전 5~7)로부터 申時(오후 3~5)까지의 숙박이 없으니, 이 시기를 놓칠 수 없다.”⁹⁾라는 합의를 하고 다음해 3월에 여행을 할 것을 서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막상 다음해 3월이 되자 약속했던 이들이 여행에 모두 참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일이 바빠서 빠질 수밖에 없게 된 사람과 약속대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로 나뉘었다. 후자의 여행을 기록한 것이 채수의 「유송도록」이다. 그런데 채수 일행이 매우 성공적인 송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에 자극이 되어 유호인 등도 송도 여행을 떠났다. 이에 대한 기록이 유호인의 「유송도록」이다.

채수의 「유송도록」은 1477년(성종 8)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8) 『성종실록』권68, 7년 6월 14일.

9) 유호인, 『속동문선』제21권, 「遊松都錄」.

12일간 기록되었다. 이 여행의 참여자들은 채수, 허침(1444~1505), 조위(1454~1503), 安琛(1445~1515), 성현(1439~1504), 成世明(1447~1510), 成世源이고 그 이외에도 몇 사람이 더 참여했다. 물론 일기 내용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이들의 여행에도 종자나 노비들이 여러 명 뒤따랐을 것이다.

여행의 주요 참여 인물들은 사가독서에 밝힌 사람들과 그 이외에 참여한 안침, 성현, 성세명, 성세원 등이다. 안침, 성현 등이 채수 등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성현과 채수는 3년 뒤에도 관동 지역을 함께 유람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두 사람 모두 탁월한 글재주로 당대에 이름을 떨치던 인물들이다. 더구나 이들이 여행을 했던 성종 8년 당시에 개성 유수는 성현의 큰형 成任(1421~1484)이었다. 성세명과 그의 동생 성세원은 성임의 아들이다. 성세명은 姜希孟(1424~1483)의 사위이다. 강희맹의 이모부가 세종이다. 면면으로 보아서 이 여행에 참여한 이들은 당시 조금씩 등장하고 있던 사람과 성향 인물들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훈구적 성향의 인물들이다.

채수, 성현, 강희맹 등 인물과 관련해서 15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주목할 현상이 있다. 이 시기에 관료와 지식인들 사이에 자기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남기는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거정의 「筆苑雜記」, 성현의 「용재총화」, 이륙의 「靑坡劇談」, 어숙권의 「패관잡기」, 김안로의 「龍泉談寂記」 등이 그것이다. 산문의 한 형태로 滑稽談도 등장했다. 서거정의 「太平閑話滑稽傳」, 강희맹의 「村談解頤」, 宋世琳의 「禦眠楯」 등이 그것이다.¹⁰⁾ 필자의 日常이 기록의 소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록은 일기의 형식과 매우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단일한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고 유사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기의 등장과 함께 주목할 양상이다.

채수와 성현은 이런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채수는 『薛公瓚傳』의 저자로 유명하다. 『설공찬전』은 한문으로 저술된 것으로 불교

10) 임형택,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1981, 273쪽.

의 輪回禍福을 내용으로 하며 포악한 군주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당대에 국문으로도 번역될 정도로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백성들을 미혹케 한다는 이유로 조정의 명으로 1511년(중종 6)에 전국적으로 수거되어 불태워졌다. 채수는 또 패설집 『村中鄙語』를 지었다. 이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성현이 1496년(연산군 2) 冬至에 쓴 이 책의 서문이 남아서 그 내용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서문에서 성현은 매우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였다. 즉 六經이나 최대로 역사서 이외에는 모두 헛된 글이라는 당시에 존재했던 주장을 반박하였다. “후인의 권계가 될 만하고 야외의 逸史(正史에서 빠진 사실들을 기록한 역사, 필자주)가 될 만하며 노년의 취미 거리가 될 만하고 한가히 지낼 때의 음악이 될 만”한 글도 헛된 글이 아니라 주장하였다.¹¹⁾ 성현 자신도 『용재총화』의 저자로 유명하다. 채수의 사위가 김안로(1481~1537)이다. 그는 사림세력의 반대편에 선 이유로 정치적으로는 몹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장인처럼 문과에서 장원급제했던 그도 『용천담적기』를 저술했는데, 이는 35가지 이야기를 수록한 야담집이다.

한편 채수 일행이 떠들썩한 소문을 일으키면서 매우 성공적인 여행을 다녀오자 함께 가지 못했던 유호인과 양희지(1439~1504)가 이에 자극되어 송도 여행에 나섰다. 채수 무리의 여행이 그랬듯이 사가독서를 했던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여행에 참여했다. 이 여행에 申從濩(1456~1497)가 동행했다. 그는 유호인이 그랬듯이 김종직이 주도한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이다. 뛰어난 글재주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주목되는 것은 그가 신숙주의 손자이자 한명회의 외손자라는 점일 것이다. 비록 유호인은 김종직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문장가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성종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다. 세 사람 모두 이 시기에 등장하고 있던 이념 지향적인 사림 성향의 인물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호인 일행의 여행은 1477년(성종 8) 4월 25일에 한양을 출발하면서 시작되어, 5월 7일 서울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채수 일

11) 성현, 『허백당문집』권7, 「村中鄙語序」

행처럼 총 12일 간의 일정이었다. 유호인 일행의 여행 역시 채수 일행의 그것처럼 유쾌하고 흥겨웠고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여행이었다.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들은 당시 조선 최고의 가문 출신이거나 그에 더하여 빛나는 미래가 약속된 신진 엘리트 관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호인의 「유송도록」에는 기억해 두어야 할 기록이 하나 나온다.

大廟洞에 들어가 圃隱의 옛 집을 찾으니 뜰에는 풀이 우거지고 빈 터만 남아 지금은 비구니의 거처[尼坊]가 되었다. 공이 비록 천명과 인심이 이미 진정한 주인(이성계, 필자주)에게 돌아간 줄을 알았지만, 그래도 구구한 한 기동으로 5백 년을 내려온 큰 집을 떠받들다가 마침내 절개에 엎드려 죽었으니, 어찌 천지의 정기가 공에게 모여서, “그의 날 적에도 까닭이 있고 죽을 적에도 하고 간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¹²⁾

위에서 말했듯이 양희지나 신종호는 이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사림과 성향 인물들과는 정치적 성향이 달랐던 인물이다. 예를 들어 양희지의 줄기에는 그가 젊어서부터 글을 잘하여 이름이 났지만, 任土洪·柳子光·盧公弼과 잘 지냈으며, 출처와 진퇴가 바르지 못했다고 기록되었다.¹³⁾ 사림과 성향의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이다. 유호인 역시 김종직의 문인이기는 했지만 김굉필 등 이념 지향적 인물과는 구분되었다. 그렇다면 위 유호인의 기록은 이 정도의 인식이 당시 젊은 지식인 관료들 사이에서 정몽주에 대한 상식이었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채수 무리와 유호인 무리의 송도 여행이 있는 지 8년 뒤인 1485년(성종 16)에 남효온 무리의 송도 여행이 있었고 그것이 「송경록」에 기록되었다. 이 여행은 앞선 두 무리의 여행과 여러 가지로 달랐다. 우선 참가자들의 면면이 달랐다. 앞선 두 여행에서도 종자나 노비들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워도 주요 참여자들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명확했다. 그것은 그들이 대부분 전도유망한 인물들이고, 실제로 나중에

12) 성현, 『허백당문집』권7, 「村中鄙語序」

13) 『연산군일기』권53, 10년 윤4월 29일.

고관대작을 역임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남효온과 함께 여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대략적인 윤곽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효온과 여행을 함께했던 인물로는 禹善言, 李貞恩, 李攄 등을 들 수 있다. 우선언은 영남에 있는 김종직을 찾아가서 제자가 된 인물이지만 생몰년이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남효온이 어울리던 ‘청담파’의 일원이다. 이정은 역시 생몰년을 알 수 없지만 태종의 손자로 宗室 인물이다. 거문고에 일가를 이룬 인물이었고 그의 증손자가 유명한 梧里 李元翼이다. 이충은 김종직의 문인이며 김일손, 姜景敍(1443~1510) 등과 교유하였다. 무오사화(1498)에 귀양 갔다가 갑자사화(1504)에 사사되었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남효온의 딸이다. 이들 세 사람 이외에도 「송경록」에는 길안내를 했던 韓壽, 이충의 친구로 짐작되는 叔亨, 악공인 宋會寧,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子華, 石乙山 등 인물과 노비들 4~5명 정도가 나온다.

「송경록」은 앞선 두 「유송도록」과는 서술의 분위기와 형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도 정몽주의 옛집을 방문하는 데 이런 차이를 잘 보여준다.

太廟洞에 들어갔다. 한수가 동구의 누각 주춧돌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여기는 侍中 정몽주가 高勵 무리들에게 격살당한 곳입니다.”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동네로 조금 들어가다 작은 집 하나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이 시중의 옛집입니다.”하였다. 우리들이 대문 앞에 앉아 慷慨한 마음으로 옛일을 애도하였다.¹⁴⁾

유호인은 쇠락하여 쓸쓸해진 정몽주의 옛집을 보면서 정몽주의 절개를 기렸다. 그에 비하면 남효온 무리는 정몽주의 옛 일을 반추하며 강개한 마음으로 옛 일을 애도하였다. 유호인이 정몽주의 절개를 기리면서도 심리적으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했다면 남효온은 그 거리를 좁혀 밀도 있는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송경록」 서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송경록」의 서술은 매우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다. 그런 서술의 형식이나 분위기가 일기 형식과 잘 어울린다.

14) 남효온, 『추강집』 권6, 「송경록」

3. 「지리산일과」와 「속두류록」

1487년(성종 18)에 남효온(1454~1492)은 지리산을 여행하며 그 감상을 「지리산일과」에 기록하였고, 2년 뒤 1489년(성종 20)에는 김일손(1464~1498)이 정여창(1450~1504)과 지리산을 여행한 후에 「속두류록」을 기록했다. 「속두류록」이라는 이름은 17년 전 스승 김종직의 「유두류록」을 잇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같은 지리산을 둘러보았지만 남효온과 김일손의 기록은 그 정서와 기록 형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남효온은 34세였던 1487년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리산에 올랐다. 「지리산일과」에는 이 16일 간의 여행 기록이 담겼다. 기록 형식에서 「지리산일과」는 1472년 김종직의 「유두류록」이나 1489년 김일손의 「속두류록」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김종직과 김일손은 지리산 유람에 대한 오랜 바람, 유람을 하게 된 계기, 동반자들이 모이는 과정 등을 글 첫머리에 상세하게 밝혔다. 그에 비해서 「지리산일과」는 얼핏 냉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기 형식대로 진행된다. 글의 처음은 “丁未九月二十七日癸亥. 發晉州餘沙等村 赴斷俗寺-정미년(1487, 성종 18) 9월 27일. 진주 여사등촌을 출발하여 단속사로 향했다.”로 시작되고, 마지막은 “己卯. 別海間, 戒澄. (중략) 步行四十餘里. 還至餘沙等村.- 기묘일(13일). 해한, 계정과 작별했다. (중략) 40여 리를 걸어가서 다시 여사등촌에 이르렀다.”로 끝맺음하였다. 제목을 ‘日課’라고 달았듯, 자신의 주관적 심경을 드러내지 않은 채 날짜에 따라 여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의 형식과 감정이 일기 형식과 부합한다.

김일손은 26세였던 1489년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 간 지리산을 둘러보았다. 「속두류록」 앞머리에는 두류산 여행에 나서게 된 계기, 참가한 사람들과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연이 기록되었다. 본래는 조위와 함께 여행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 정여창이 참여하게 된 사정을 길게 설명했다. 또 ‘林貞淑’이 참여했음도 밝히고 있다. 임정숙이라 기록된 인물은 ‘貞淑’을 字로 쓰는 林大叟이다. 김종직의 「유두류록」에도 그 이름이 나온다. 김종직이 지리산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

이 있어서 “俞克己 林貞叔과 더불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찍이 섭섭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임대동은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듯하다. 그런데 정작 김종직의 지리산 여행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손의 여행에 참여한 것은 그때의 아쉬움 때문이었을지 모르겠다. 생몰이 확인되지 않지만, 세조 11년(1465)에 진사에 합격했던 것으로 미루어 1454년 생인 조위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일손의 서형 金亨從도 동행했다. 하지만 「속두류록」의 내용은 거의 김일손과 정여창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기록 형식면에서 「속두류록」은 날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물론 서술된 내용을 통해서 날들을 구분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이튿날 여명에”, “이튿날 아침에” “이튿날에”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날짜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간지로 표시되었다.

남효온과 김일손은 각각 1487년과 1489년에 2년 간격을 두고 거의 비슷한 15, 16일에 걸쳐서 지리산을 여행했다. 남효온은 노비 5명만이 따라갔고 벗이나 동지라고 할 만한 同行人 없이 묵묵히 ‘일과’를 소화해냈다. 반면에 김일손은 절친 정여창 이외에도 서너 명의 동행인들과 함께하였다. 남효온이 지리산 여행 내내 길양식조차 별로 여유가 없었던 것에 비해서 김일손은 사정이 전혀 달랐다. 당시의 남효온이 이제 출세길에서 떨어진 존재였다면 김일손은 누가 보기에든 앞날이 크게 기대되는 26세의 젊은 인재였다. 영남을 순시하던 재상 金殷卿이 노자를 주어 그를 전송했고, 함양 군수 李箴이 후한 노자를 주었고, 단성 현감 崔慶甫가 노자를 후히 보내주었다.

4. 「유금강산기」와 「유금강록」

15세기 끝 무렵인 1485년(성종 16)에 남효온의 「유금강산기」가 등장했고 8년 뒤인 1493년에 이원(?~1504)의 「유금강록」¹⁵⁾이 뒤를 이었다.

15) 이원, 『再思堂先生逸集』권1 雜著.

두 기록은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금강산에 대한 여행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될 뿐만 아니라, 당시 일기 기록 형식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금강산기」는 처음부터 날짜나 간지를 쓰고 그날의 일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김종직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서론 격에 해당하는 서술이 먼저 제시되었다. 금강산에 대한 설명, 금강이라는 산 이름이 불교적 유래에서 온 것에 대한 서술이 제시되었다. 또 마지막에도 짧지만 글 전체에 대한 맺음말 성격의 글이 나온다. 이러한 구성은 2년 뒤 필자의 또 다른 기록인 「지리산일과」의 완벽한 일기 형식과도 차이가 있다.

「유금강산기」는 1485년(성종 16) 4월 15일에 서울을 출발했다가 다음 달인 윤4월 20일에 다시 서울에 들어오기까지 여정을 꼼꼼히 기록하였다. 제목처럼 내용이 금강산에만 한정된 기록은 아니다. 금강산 안에서서의 여행이 중심을 이루기는 하지만, 금강산에 가고 오는 모든 여정이 기록되었다. 모두 35일 간의 기록이며, 그 사이에 하루도 누락된 날이 없다. 이동 수단으로 말을 탔고 雲山이라는 승려와 동행했다. 그는 동행인이자 길 안내자였다. 물론 늘 그렇듯이 남효온의 수발을 들었던 종들도 동행했다.

「유금강산기」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매일의 경험이 대부분 당일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본문에 이런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 「유금강산기」 마지막은 “乙巳 後四月 二十一日 辛丑記” 즉 을사년 1485) 윤4월 21일 신축일에 기록했다는 말로 끝난다. 남효온이 서울에 돌아온 다음날이다. 또 윤4월 신사일(1일)에는 “羅漢殿이 있어 開明하여 앉을 수 있기로 나는 그 위에 앉아 일기를 썼다.(庵後有羅漢殿 開明可坐. 余坐其上書日課)”라는 내용이 나온다. 남효온은 1487년의 기록에도 「지리산일과」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일과(日課)’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금강산기」는 기록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아닌 구체적 遊山の 經路와 그 과정에서 있던 행위들로 촘촘히 채워져 있다. 하루치 서술 분량도 적지 않다. 당일에 있었던 것을 바

로 기록하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일들을 이렇듯 세밀하고 풍부하게 적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유금강산기」는 매일매일 간지를 쓰고 그 아래 그날의 일을 상세히 적었고, 끝에는 그날 걸은 거리를 적었다. 함께 여행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가 일지처럼 쓴 것도 아니고 순전한 개인의 기록이다.

이원은 남효온이 쓴 『師友名行錄』에 나온다. 그는 李齊賢의 7세손이며 사육신 중 한 사람인 朴彭年의 외손이다. 이런 그의 면모를 남효온은 “두 집안의 현량함이 한 사람에게 모아졌다.”고 말하였다. 성종 11년(1480)에 진사가 되고, 동왕 20년(1489)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했다. 연산군 초에 사가독서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손은 스승 김종직 문하에 자신이 ‘神交’를 맺은 13인을 거명하면서 文章 분야에서 姜渾, 李胄, 李穆과 함께 이원을 꼽았다.

이때 이원이 금강산 여행에 나선 계기는 재직 중에 있었던 불상사 때문이었다. 그는 국가 제사나 시호를 담당하는 奉常寺에서 종8품 奉事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직무로 김종직의 시호를 ‘文忠’으로 지어 올렸다가 파직이 되었다. 글의 앞부분에서 여행의 계기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금년 봄에 太常(:봉상시, 필자주)의 관원이 되어 文詞로 죄를 얻게 되었는데, 대단히 기뻐하고 호연히 동쪽으로 여행할 마음을 가졌다.” 그는 얼마 후 복직이 되었지만, 이 시호의 일로 무오사화 때 평안북도 郭山에 杖流되었다가 1500년 나주로 이배되었다. 그리고 끝내 1504년 갑자사화로 참형을 당했다.

「유금강록」은 일기보다는 記의 형식에 더 가깝다. 먼저 서론 격으로 금강산의 행정지리적 위치 설명. 금강산에 올 수 있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다. 또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맺음말 형식의 글을 덧붙인다.

아,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고 했다. 높은 곳에 올라서는 ‘먼 곳을 갈 때는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물을 보면서는 ‘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반절 정도 가서 스스로 그만두는 나약함’을 진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구덩이를 채운 뒤에

나아간다.’는 학문을 힘쓴다면 이러한 여행이 어찌 기이한 경치를 찾아다니고 유람에만 힘쓰는 것이겠는가? 仁과 智를 몸으로 깨닫고 사물을 궁구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다.¹⁶⁾

무엇보다 「유금강록」에는 날짜를 알 수 있는 간지 표시가 별로 없다. 하지만 기록 내용으로 보아서 하루의 구분은 대략 가능하다. “다음날(明日)” 등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모든 날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글의 끝 부분에서 “凡往來山水之間二十餘日(산수 간에 왕래한 날이 모두 이십여 일)”이라고 나오는데, 내용으로 구분한 날짜는 그 절반 정도인 10일 남짓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유금강산기」와 「유금강록」은 15세기가 끝나가는 즈음에 같은 금강산을 둘러보고 쓴 기록이다. 두 기록의 저자인 남효온과 이원은 여행 당시에 보면 서로 처지가 비슷했다. 남효온은 관직과는 아주 떨어진 처지였고, 이원은 파직된 상태였다. 이들이 한 달 안팎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유금강산기」와 「유금강록」 기록으로 보아서 15세기 말까지도 ‘일기’가 사회적으로 정착된 기록 형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유금강산기」는 비록 앞뒤로 약간씩의 글이 덧붙기는 했지만 완벽한 일기기록이다. 그날의 일을 그날 기록한다는 일기의 이상적 조건인 ‘즉시성’의 측면까지 갖춘 기록이다. 나아가 이 기록 2년 뒤 남효온이 기록한 「지리산일과」는 형식면에서 더 발전해서 완전한 일기형식을 갖추었다. 하지만 아직 ‘日記’ 혹은 ‘日錄’이라는 말 대신에 남효온은 ‘日課’라는 말을 쓰고 있다. 아직 사회적으로 ‘日記’ 혹은 ‘日錄’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동시기라고 볼 수 있는 1493년에 나온 「유금강록」은 그 형식면에서 일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요컨대 15세기 말까지는 이미 완벽한 일기형식에 도달한 기록과 그렇지 못한 것이 공존하였다.

16) 『再思堂先生逸集』권1, 雜著, 遊金剛錄.

Ⅲ. 맺음말

이규보는 1200년에 자신의 지방 관직생활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가 2년간 전라도 전주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그때 기록했던 것들을 개경에 복귀하여 정리한 기록이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일기 기록의 효시로 보기는 어렵다. 일기체 기록들은 15세기 후반부터 차츰 등장하기 시작했다. 16세기 전반에 살았던 어숙권이 증언하듯이, 1471년 김종직이 자신의 지리산 여행을 기록한 「유두류록」을 일단은 우리나라 일기 기록의 효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록 형식의 새로운 등장이나 변화는 당대의 내밀하고 다양한 사회적 특성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일기체 기록의 등장과 맥락을 같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현상이었다. 그것은 이 시기에 문인들 사이에 자기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두는 풍조가 생겼다는 점이다. 채수의 『존중비어』, 성현의 『용재총화』, 김안로의 『용천담적기』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기록들의 등장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이점에 대해서 성현은 채수의 『존중비어』 서문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 놓았다. 거기에서 그는 유교의 경전(經典)이나 역사책 외에는 모두 헛된 글이라는 물려받은 상식을 반박하였다. 개인의 일상과 생각을 기록한 것도 가치 있는 글이라는 주장은 자기 주체성에 대한 긍정이자 천명에 다름 아닐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15세기가 끝나가는 1494년에 태어나 1535년부터 1567년까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일기를 쓴 이문건의 『목재일기』는 일기가 조선시대 문인들의 기록형식으로 완전히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김종직의 「유두류록」에서 『목재일기』까지 약 60여 년 사이에 일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으로 정착되는가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위에서 검토한 몇몇 15세기 후반 ‘일기’는 그런 경향의 ‘출발’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일기 형식의 글이 대부분 여행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에도 일기는 일상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일상을 벗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일상의 기록이 생활일기, 관직일기 등이라면 그것을 벗어난 일기는 여행일기, 유배일기, 피난일기 등이다. 아마도 일기 기록은 후자에서 시작해서 전자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기는 매일 매일의 새로운 경험을 기록할 필요에서 생겼을 것이고 여행은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경험이다.

15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기록 형식으로서의 ‘일기’가 완전히 정착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15세기 후반에 가장 발전된 형식의 일기를 기록한 사람이 남효온이다. 그는 3편의 여행기록을 남기는데, 그중에서도 「지리산일과」는 전형적인 일기의 형식과 내용을 가진다. 더구나 「유금강산기」에서는 당일의 기록을 당일에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가 자신의 기록에 대해서 ‘日記’ 혹은 ‘日錄’이라는 단어 대신에 ‘日課’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적어도 그가 「지리산일과」나 「유금강산기」를 기록했을 당시에 ‘일기’나 ‘일록’이 사회적으로 정착된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기록 형식으로서의 일기는 조선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글쓰기 형식이지만 조선 건국 당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적어도 15세기 후반부터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었고 15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완료된 현상은 아니었다. 아마도 16세기 전반에 이 일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었지만, 사대부 계층의 확대와 土禍로 표현되는 강력한 정치적 현상 등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제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1년 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稗官雜記」, 『허백당문집』

「遊頭流錄」(『점필재집』 문집 제2권)

「遊松都錄」(『속동문선』 제21권)

「遊松都錄」(『속동문선』 제21권)

「遊金剛山記」(『속동문선』 제21권)

「頭流紀行錄」(『濯纓先生文集』 권5, 『속동문선』 제21권)

「松京錄」, (『추강집』 제6권, 잡저)

「지리산 日課」(『추강집』 제6권, 잡저)

「遊金剛錄」(『再思堂先生逸集』 권1, 잡저)

강정화, 「경남학: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의 지리산유람(智異山遊覽)과 「속두류록(續頭流錄)」, 『慶南文化研究』31, 2010

문범두,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의 〈속두류록(續頭流錄)〉 고(考) : 기술방식(記述方式)과 작가의식(作家意識)을 중심(中心)으로」, 『韓民族語文學』51, 2007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朝鮮時代史學報』79, 2016

이성혜, 「경남학 : 사람들의 유람 입문서, 김종직의 「유두류록(遊頭流錄)」, 『慶南文化研究』31, 2010

이훈, 「再思堂 李穡의 산수 유람관과 「遊金剛錄」 연구」, 『강원문화연구』26, 2007

정출현, 「추강 남효온과 유산(遊山): 한 젊은 이상주의자의 상처와 지리산의 위무(慰撫)」, 『韓國漢文學研究』No.47, 2011

정출현, 「남효온의 송도유람과 『송경록(松京錄)』의 울울한 여정」, 『韓國漢文學研究』58, 2015

임형택, 『한국사』1, 국사편찬위원회, 1981

Abstract

The appearance of a diaries in the late 15th century

Lee, Jung-chul

As Eo Sook-kwon[魚叔權], who lived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testified, the appearance of diaries began in the late 15th century. In particular, "Yuduryurok(遊頭流錄)," which recorded Kim Jong-jik[金宗直]'s trip to Jirisan Mountain in 1472, can be regarded as the beginning of Korea's diary records.

The emergence or change of a new record format that is spreading socially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social changes of the time. What is believed to be sharing the background is that at this time, there was a tendency among writers to record what they saw and heard around them. The advent of these records suggests that some important changes are under way in the minds of writers during this period. This can mean that even if it is not serious like Confucian sutras or history books, the world centered on oneself is also worth recording.

This paper reviewed eight diaries appearing in the late 15th century. As a result, perhaps until the end of the 15th century, the "diary" as a record format seems not to be fully established. Nam Hyo-on[南孝溫] recorded the most advanced type of diary in the late 15th century. He leaves three travel records, among which "Jirisan Ilgwa(智異山日課)" has a typical style and content of diaries. Furthermore, "Yugeumgangsangi(遊金剛山記)" showed the record of the day being

recorded on that day.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he is using the word 'Ilgwa' instead of the word 'ilgi(日記)' or 'illok(日錄)' for his record. This would at least imply that "diary" or "ilok" were not firmly established in the late 15th century

keywords :

Joseon Dynasty, Diary, 15th Century, Nam Hyo-on[南孝溫], Kim Jong-jik[金宗直]